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애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Narcissism*

윤현혜(Hyeon Hae Yun)¹⁾

김희화(Hee Hwa Kim)²⁾

김경연(Kyong Yeon Kim)³⁾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ediating effects of narcissism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783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in Busan.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popularity and narcissism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effects of perceived popularity on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was perfectly mediated by narcissism. Athletic and fighting abilities were more important for boys' perceived popularity, but active involvement in social activity and appearance were more important for girls' perceived popularity. It was further observed that having a good sense of humour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perceived popularity, irrespective of gender.

Key Words :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 공격성(aggression), 자기애(narcissism).

* 본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¹⁾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²⁾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겸임연구원

³⁾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겸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Hee Hwa Kim,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30 Jangjeon-dong, Gue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hwakim@pusan.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형성 및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도에 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김윤경·이옥경, 2001; 도금혜·최보가, 2002; 문은영·윤진, 1994; 이미화·조중열, 2003; 황혜정, 2002; Coie & Dodge, 1983; Coie, Dodge, & Coppotelli, 1982).

전통적으로 인기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측정적 인기도’(sociometric popularity)에 집중되어 왔다(Cillessen & Rose, 2005). 이것은 집단 내 한 개인에 대한 구성원들의 선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측정 결과 개인은 인기 있는, 보통의, 무시된, 거부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집단 중 하나의 범주에 분류되기도 하고(최유경, 1999; Crick & Grotpeter, 1995), 각각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받기도 한다(도금혜, 2007; 심희옥, 2008).

그런데 최근 Parkhurst와 Hopmeyer(1998)가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청소년들이 실제로 지각하는 인기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차별화된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지각된 인기도란 또래 집단 내에서 두드러지고 유명하며 우위를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Lease, Kennedy, & Axelrod, 2002), 사회측정적 인기도가 선호의 지표라면 지각된 인기도는 사회적 평판과 영향력의 지표이다(Cillessen & Mayeux, 2004). 또한

같은 학년 또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래 및 ‘가장 인기 없는’ 또래를 직접 지명하여 평가된다는 점에서(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Rose, Sweden, & Waller, 2004),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측정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Parkhurst와 Hopmeyer(1998)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구성개념은 어느 정도 중첩되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즉, 사회측정적 인기 청소년이 반드시 인기 있는 무리의 구성원은 아니며, 지각된 인기 청소년이 반드시 선호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개념적 차별화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두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의 상충되는 결과이다. 부적응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공격성과 사회측정적 인기도 간에는 부적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공격성과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금혜·최보가와 이지민(2005, 2006)은 중·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지각된 인기도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도금혜(2007)는 중·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기 없는 친구로 지명될수록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낮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또래관계에서 높은 인기도가 과연 전통적인 통념처럼 적응의 지표로서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일부 학자들(Cillessen & Rose, 2005; Rose et

al., 2004)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자기 중요성, 특권의식, 과시와 우월성과 같은 요인들의 개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Rose 외(2004)는 지각된 인기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에서의 자신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껴 특권의식을 가질지도 모르며, 또한 이들이 획득된 인기를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해 타인과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Cillessen과 Rose(2005)도 지각된 인기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겁주거나 단념시키기 위해 외현적 또는 관계적 공격성을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인기 청소년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관점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특권의식, 과시와 우월성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는 ‘자기애’(narcissism)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해 준다. 만일 지각된 인기 청소년이 사회적 감시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지위에 있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지나 경험적 연구로 보고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밀접한 관계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은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세연(2007)의 고등학교 1, 2학년を対象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정적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도금혜 외, 2005, 2006; 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나 시간적 순서에만 집중하였고, 지각된 인기도의 증가가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부

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애가 증가하고, 증가된 자기애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지각된 인기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인기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김외열, 1989; 심미옥, 1996; Adler, Kless, & Adler, 1992; LaFontana & Cillessen, 2002; Vaillancourt & Hymel, 2006)이 성별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탐색하고 지각된 인기도가 증대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 기제로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서 형성되는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이해 및 지각된 인기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애에 의해 매개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유는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기에서 청년기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 783)

변 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학생	409(52.2)	
	여학생	374(47.8)	
학 년	1학년	385(49.2)	
	2학년	398(50.8)	
부모의 직업		부	모
	무직, 전업주부	14(1.8)	276(35.2)
	임시고용·단순노무직	40(5.1)	18(2.3)
	생산·기능직	164(20.9)	58(7.4)
	판매·서비스직	36(4.6)	81(10.3)
	자영업	138(17.6)	134(17.1)
	사무직	182(23.2)	93(11.9)
	관리직	68(8.7)	10(1.3)
	전문직	87(11.1)	74(9.5)
	기 타	15(1.9)	14(1.8)
	안 계심	29(3.7)	20(2.6)
	무응답	10(1.3)	5(0.6)
부모의 연령		부	모
	31-40세	60(7.7)	215(27.4)
	41-50세	615(78.5)	528(67.4)
	51세 이상	77(9.8)	17(2.2)
	안 계심	29(3.7)	20(2.6)
무응답	2(0.3)	3(0.4)	

교 1, 2학년 남·여 청소년이다. 연구대상 표집을 위해 부산광역시 3개구에 소재한 2개의 남자 중학교와 2개의 여자 중학교를 유의표집 방법으로 추출한 후 1, 2학년 26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수집된 877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94부를 제외한 783부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지각된 인기도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Cillessen과 Mayeux(2004)의 척도를 변안·수정

하여 ‘반에서 인기 있는 친구’와 ‘반에서 인기 없는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원 척도는 전체 학년 학생의 명단을 제시한 후 무제한 지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급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 중학교의 현실과 조사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명단을 제시하지 않고 반 단위로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반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반에서 획득한 ‘인기 있는 지명’ 득표수와 ‘인기 없는 지명’ 득표수 각각은 학급 단위로 표준점수화(Z점수화)되었다. 지각된 인기도는 이렇게 산출된 인기 지명점수에서 비인기 지명점수를 뺀 후 다시 표준점수화된 것을 사용하였다(Cillessen & Mayeux, 2004).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지각

된 인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인기 이유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12개의 항목(예 : “웃기다, 재미있다, 개그를 잘한다”, “활발하다, 활기차다, 적극적이다, 명랑하다”)들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인기아로 지명된 각 청소년들의 인기 이유 번호를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3)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보다 나은 이해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주어를 포함시키고 일부 단어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예 :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를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로 수정).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외현적 공격성 20문항(예 : “나는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면, 그 아이를 다치게 한다.”)과 관계적 공격성 20문항(예 :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아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4가지 응답 범주를 가진 Likert식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 범주를 5개로 조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0~1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93,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94이었다.

4) 자기에

청소년의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Raskin과 Terry(1988)의 자기애적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본 연구자가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2인과 함께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기애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두 문장을 나란히 제시하고 둘 중의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의 보다 정교한 측정과 척도 간 응답 범주의 일관성을 위해 자기애적 성향을 측정하는 진술문만을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개의 범주를 가진 Likert식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개 문항(‘겸손한 모습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을 제거한 후 39문항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0~15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95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청소년의 인기 이유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조사에서 개방형 척도를 구성할 경우 응답이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예비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한 1개 남자 중학교와 1개 여자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각 학교에서 1, 2학년 1학년씩 총 4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선정된 표본수는 142명이었으나 회수된 질문지는 138부(회수율 97%)였고, 모두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응답 목적 및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기 이유를 구성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인기 있는 친구를 3명 지명하도록 한 뒤, 이들의 인기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방형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이후 본 연구자가 응답자들의 반응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한 가지 특성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 표현을 선정한 뒤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2인과 상의하여 최종 12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3개구에 소재한 4개 중학교의 1, 2학년 남·여학생이다. 본 연구자가 학년부장 교사의 양해를 얻어 아침 자습시간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응답목적 및 요령을 전달받은 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개 학급에서 회수된 질문지는 877부(회수율 98%)였으며, 이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질문지 94부를 제외한 783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WIN 14.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인 성별, 학년, 부모의 직업 및 연령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검증절차에 따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다중응답분석 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독립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자기애 및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인기도가 높을수록 자기애가 높아지고($r = .34, p < .001$),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r = .12, p < .001$; $r = .13, p < .001$). 그리고 자기애가 높을수록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3, p < .001$; $r = .22, p < .001$).

각 변인들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의 두 하위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

<표 2>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

(N = 783)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34***			
외현적 공격성	.12***	.23***		
관계적 공격성	.13***	.22***	.83***	

*** $p < .001$.

보았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견해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세 가지 회귀방정식이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는 매개변인을 독립변인에 회귀시키는 방정식이고, 둘째는 종속변인을 독립변인에 회귀시키는 방정식이며, 셋째는 종속변인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에 회귀시키는 방정식이다.

이들 회귀방정식으로 매개변인의 효과를 확정짓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통제 이후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완전매개모형이 되고, 감소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면 부분매개모형이 된다.

이상의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의 두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가 완전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부분 매개자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보았다.

1)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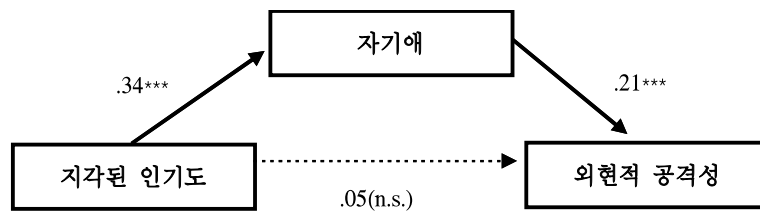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매개변인인 자기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34, p < .001$). 그리고 2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종속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 = .12, p < .001$). 마지막으로 3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매개변인인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 = .21,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애를 통제된 후에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종속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beta = .05, n.s.$). 그러므로 자기애는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및 외현적 공격성의 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3>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1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34***	.12	.103.79***
2	지각된 인기도	외현적 공격성	.12***	.02	.12.25***
3	자기애 지각된 인기도	외현적 공격성	.21*** .05	.05	.22.31***

*** $p < .001$.



<그림 1>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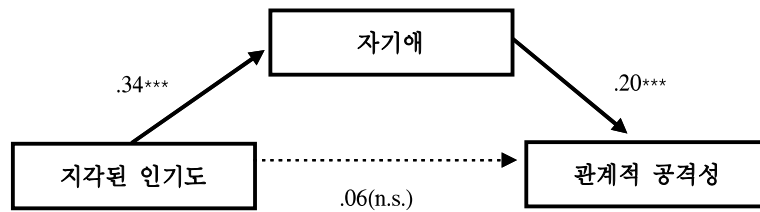
2)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이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표 4>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1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34***	.12	103.79***
2	지각된 인기도	관계적 공격성	.13***	.02	12.70***
3	자기애 지각된 인기도	관계적 공격성	.20*** .06	.05	20.37***

*** $p < .001$.



<그림 2>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완전매개모형

매개변인인 자기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34, p < .001$). 또한 2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 = .13, p < .001$). 마지막으로, 3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매개변인인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beta = .20,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애를 통제한 후에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beta = .06, n.s.$). 그러므로 자기애는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및 관계적 공격성의 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애는 지각된 인기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

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지각된 인기도는 공격성의 두 하위요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아닌 간접적 영향만을 미친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다중응답방식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인기 이유의 1순위는 ‘웃기다, 재미있다, 개그를 잘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남 = 10.5%, 여 = 11.4%).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순위가 다소 달랐으며, 몇몇 영역에서는 남·여 간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발하다, 활기차다, 적극적이다, 명랑하다’가 여학생들의 응답 빈도

<표 5> 청소년의 인기 이유

인기 이유	전체		남학생		여학생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웃기다, 재미있다, 개그를 잘한다	864(21.9)	1	414(10.5)	1	450(11.4)	1
활발하다, 활기차다, 적극적이다, 명랑하다	684(17.3)	2	237(6.0)	4	447(11.3)	2
공부를 잘한다, 똑똑하다, 특정 과목을 잘한다	464(11.7)	3	239(6.0)	3	225(5.7)	4
예쁘다, 잘생겼다, 귀엽다, 어떤 대상(연예인 등)을 닮았다	439(11.1)	4	145(3.7)	5	294(7.4)	3
친절하다, 도와준다, 빌려준다, 고민을 들어준다	324(8.2)	5	132(3.3)	7	192(4.9)	5
운동(축구, 농구 등)을 잘한다	319(8.1)	6	272(6.9)	2	47(1.2)	9
리더십이 있다, 임원(반장 등)역할을 잘한다	294(7.4)	7	121(3.1)	8	173(4.4)	6
성실하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165(4.2)	8	76(1.9)	9	89(2.3)	8
싸움을 잘한다	161(4.1)	9	140(3.5)	6	21(0.5)	10
재능(노래, 춤, 그림, 사진, 요리, 게임 등)이 있다	144(3.6)	10	49(1.2)	10	95(2.4)	7
돈을 잘 쓴다, 맛있는 것을 잘 사준다	58(1.5)	11	37(0.9)	11	21(0.5)	10
기타(위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35(0.9)	12	17(0.4)	12	18(0.5)	12
전체	3951(100.0)		1879(47.6)		2072(52.4)	

주 : 이분형 다중응답방식으로 처리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의 계산은 총 응답 빈도인 반응수(남 = 1879, 여 = 2072)를 기준으로 하였음.

중 1순위에 버금가는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4순위에 해당하였다(남 = 6.0%, 여 = 11.3%). 또한 ‘예쁘다, 잘생겼다, 귀엽다, 어떤 대상(연예인 등)을 닮았다’는 여학생들에게는 7.4%를 차지하여 3순위의 인기요인이었으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보다 낮은 3.7%를 차지하였다. ‘운동(축구, 농구 등)을 잘한다’ 항목은 남학생들에게는 6.9%를 차지하여 인기 요인의 2순위였지만, 여학생들에게는 1.2%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싸움을 잘한다’ 항목 역시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3.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여학생들에게는 0.5%를 차지하였을 뿐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인기도의 증가에 따른 공격성 증가의 기제로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또래관계에서 형성되는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이해 및 지각된 인기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중학교 1, 2학년 남·여 청소년 78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중다 회귀분석, 다중 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인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기애가 높아지고,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애가 높아질수록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외현적 및 관

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지각된 인기도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은 자기애에 의해 매개되어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운동능력과 싸움실력이라는 이유를 든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 여학생은 활발성과 외모라는 이유를 든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유머 요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도금혜, 2007; 도금혜 외, 2005, 2006; 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Rose et al., 2004)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계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 대해서 나타나, 인기도 증가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는 외현적 공격성 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각된 인기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지각된 인기가 또래들 사이에서 우세함을 과시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Cillessen & Rose, 2005). 또한 또래 집단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부적응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자기애와 공격성 간, 인기도와 자기애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애 성향과 공격행동의 정적인 관련성은 선행연구들(박정민, 1998; 서수균·권석만, 2002; 이세연, 2007; 장유진, 2007)에서 일관되게 보고된 바와 같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지각된 인기도와 자기애 간의 정적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높은 인기를 얻게 될수록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자기 과시, 특권의식과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성, 우월성, 허영성, 그리고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인데, 청년 초기에 나타나는 개인적 우월화와 같은 자아중심성에 기인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기도와 자기애 간의 관계가 청년 초기 이후 및 성인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애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각된 인기도는 공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각된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아지며, 강화된 자기애는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의 연구들(도금혜, 2007; 도금혜 외, 2005, 2006; 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은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집중하여,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의 여러 하위유형 간의 상관관계나 이 둘의 시간적 순서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을 뿐, 그 발생 기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그리하여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애의 완전 매개효과는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가 자기애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주었다. 이로써 지각된 인기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의 자신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특권의식을 가질지도 모르며(Rose et al., 2004),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겁주거나 단념시키기 위해 공격성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낼지도 모른다(Cillessen & Rose, 2005)는 일부 연구자들의 논의 또한 타당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자기애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을 관련짓는 결정적 메커니즘이라는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가 강화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인기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막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기 청소년들에게 인기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높은 사회적 위치가 공격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살펴본 결과 다른 항목들에서는 비율상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남학생 또래집단에서는 운동과 싸움을 잘하는 것이, 여학생 또래집단에서는 활발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인기에 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특성 중 여학생은 외모를 더 중요시하고 남학생은 운동능력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김외열, 1989; Adler, Kless, & Adler, 1992; Vaillancourt & Hymel,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발달상 청소년들이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Perkins & Lerner, 1995)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남자는 신체의 기능적 측면에, 여자는 신체의 미적 측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학생의 인기 요인으로서 ‘활발성’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점차 양성화되어 가는 성역할 정체감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성별에 관계없이 유머가 인기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머를 인기도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 중의 하나로만 인식하고(Vaillancourt & Hymel, 2006), 이 둘의 독자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유머감각 및 스타일이 리더십 기술 및 대인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명선·최태산·안재영, 2007a, 2007b)를 비롯해서 유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앞으로의 인기도 연구에서 유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초기에 높은 지각된 인기도는 높은 자기에 및 높은 공격성과 관련된다. 둘째,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는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각된 인기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기가 강해지면서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각된 인기 청소년들의 자기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인기의 이유로써 남자 청소년들은 운동능력과 싸움실력이 보다 중요하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활발성과 외모가 더 중요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유머가 지각된 인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에의 완전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인 자기에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잠재적으로 부적응의 위험에 있는 지각된 인기 청소년들을 위한 중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지각된 인기 청소년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의 지각된 인기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공격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자기보고식에 한정하지 않고 또래 보고, 교사 보고 등 다차원적인 측정방식을 사용하면 개인의 공격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연구의 결과가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명확성은 종단적 자료에 의해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외열(1989). 또래 아동이 지각한 인기아와 배척아의 제특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경·이옥경(2001). 사회정서발달 :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2), 65-82.
- 도금혜(2007). 청소년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대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도금혜·최보가(2002). 청소년의 인기도에 따른 사회 중심성과 반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0(10), 87-102.
- 도금혜·최보가·이지민(2005).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 및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2), 57-67.
- 도금혜·최보가·이지민(2006).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대한가정학회지**, 44(2), 1-11.

- 문은영·윤진(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1), 44-63.
- 박정민(1998).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수균·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4), 809-826.
- 심미옥(1996). 남녀 초등학교 인기 요인 분석. **교육연구**, 14, 277-301.
- 심희옥(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이미화·조중열(2003). 공동연구 : 청소년의 인기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된 행동특성. **인문논총**, 17, 25-38.
- 이세연(2007).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진(2007).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에 따른 자기애 및 지배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선·최태산·안재영(2007a). 청소년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대인관계기술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 97-108.
- 최명선·최태산·안재영(2007b). 연구논문 : 청소년의 유머감각, 유머스타일이 리더십기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149-167.
- 최유경(1999). 부모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경(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2002).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35-49.
- Adler, P. A., Kless, S. J., & Adler, P. (1992). Socialization to gender roles : Popularity among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Sociology of Education*, 65(3), 169-18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illessen, A. H. N.,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 147-163.
- Cillessen, A. H. N., & Rose, A. J. (2005). Understanding popularity in the peer syst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102-105.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 Psychology*, 18, 557-570.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LaFontana, K. M., & Cillessen, A. H. N. (2002). Children's perceptions of popular and unpopular peers : A multimethod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 635-647.
- Lease, A. M., Kennedy, C. A., & Axelrod, J. L. (2002). Children's social constructions of popularity. *Social Development*, 11, 87-109.
- Parkhurst, J. T., & Hopmeyer, A. (1998). Sociometric popularity and peer-perceived popularity : Two distinct dimensions of peer statu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 125-144.
- Perkins, D. F., & Lerner, R. M. (1995). Single and multiple indicator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sychological behavior among young adolescents.

-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69-298.
- Raskin, R. N.,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ose, A. J., Sweden, L. P., & Waller, E. M.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0, 378-387.
- Vaillancourt, T., & Hymel, S. (2006).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 The moderating roles of sex and peer-valued characteristics. *Aggressive Behavior*, 32, 396-408.

2010년 4월 30일 투고, 2010년 7월 6일 수정
2010년 7월 8일 채택